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로마 8,20)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별의 비밀을 발견해 낸 적도 없고, 지도에 없는 땅을 향해 향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며,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은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하느님을 믿으며 낙원을 꿈꿉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작가, 교육자, 인권운동가, 사회활동가로 활동하게 한 것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삶이 죽음보다 강하고, 하느님이 악의 힘보다 강함을 드러내는 부활절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절망을 희망이 이겨내고, 어둠은 빛을 덮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 부활의 신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의 시간은, 부활을 계속 연습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부활을 팔호 속에 넣어버린 사순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우울함이 계속 밀려듭니다. 특별히 담장 안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현실이 더욱 아득하고 무거울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팔호 속에 넣어버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슴에 품는, 현실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사순, 절망을 딛고 희망을 품으며 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부활을 살아잡시다.



각 교정시설 성탄 꾸러미 지원



2022년 12월 21(수) 서울동부구치소(2,650개), 22일(목) 서울구치소 (2,850개), 23일(금) 서울남부구치소 (2,000개), 서울남부교도소 (1,300개) 수용자들을 위하여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과자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자 꾸러미로 인해 수용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하며, 지친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5년, 공동기자회견



2022년 12월 28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지 25년을 맞이하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치인들, 종교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자는 호소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2023년 1월 2일(월) 명동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고봉중 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을 담당하는 살레시오 나명옥 바오로 신부의 송별식과 최남식 베드로 신부의 환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사제단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

구은희 임마콜라따_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각자는 이름표를 단 자신의 짐들을 차곡차곡 쌓여 놓고 삽니다. 가끔 우리는 소망이라는 새 화분을 가져와 그 방에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분에서 싹이 자라나 꽃이 피기를 바라며 물을 줍니다. 화분은 우리가 그 방을 들여다보며 쓸고 닦아야 하는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 화분에서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장소에 둘 때 자양분의 불균형으로 씨앗은 외려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 화분에서 꽃이 피지 못한 소망의 방은 웬지 쓸쓸하고 아쉽습니다. 그 까닭에 시든 화분 대신 다시금 새 화분을 들여다 놓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소망하고 요구하기에 그러한 화분이 없으면 마치 삶은 의미가 없고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봉사자들은 이제 격주로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선도하는 교도관들을 따라 세상을 단절하는 겹겹의 문들을 하나씩 여닫으며 안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경계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제 의식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점점 단절되며 마음의 깊은 한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미사나 집회를 시작하는 그 중심에 다다르면 건기의 마른 하천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듯 마음에 슬픔이 묵직하니 고여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통회의 아픔이 혼재되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굳이 그것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과 다른 그러한 아픔을 광의의 회개로 이끄는 주님의 더 큰 은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라는 명분으로 구치소를 드나든 지 어언 1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느낌으로 인해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는 저와 하느님의 관계가 아니라 저와 재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계로서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며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도 다양하듯 각자 내면의 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단절된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면 자신이 가꾸는 화분의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구치소의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만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방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바라는 바의 꽃씨를 품은 화분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이 머무는 방은 세상과 단절된 절망과 낙담만 있는 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려 그 곳은 가장 민낯의 자신과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치유와 희망의 방이라 여겨집니다.

씨앗은 조건이 알맞아야 꽃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어느 장소에 있든 마음의 씨를 좋으신 그분,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키울 수 있다면 화분은 좋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여건에 있든 좋으신 그분, 빛이신 그분의 빛을 따라 꽃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청소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장소를 잘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글론과 에훗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스라엘은 이민족 모압의 임금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에글론이 현명하거나,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민족 모압의 군대가 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판관 3,12)을 했기 때문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악한 짓’이 무엇일까요?

판관기는 이스라엘의 불충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 등의 이민족의 신을 섬기어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후 주변 민족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토속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소리에 기웃거립니다.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배당하면서 그들의 신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이비 종교나, 토속 신앙의 어떤 도사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버리고 오히려 재물이나 이익을 탐해서 그런 미신에 솔깃하는 탐욕스런 마음에 역겨워하신 것이라 강조합니다. 결국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에글론은 매우 살진 사람이었다.”(판관 3,17)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구절 사이에, 이 구절이 놓여 있어, ‘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외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성향까지도 짐작하게 합니다. 탐욕스런 민족의 죄 결과가 탐욕스런 지도자인 셈입니다.

이 탐욕스런 이 지도자로 인하여 고통받아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울부짖자, 하느님께서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벤야민 지파의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판관 3,15). 에훗은 연합, 연대,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다.”(판관 3,15)라는 표현으로 보아 오른손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단순히 비주류였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벤야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치나 종교를 책임지고 있던

유다나 레위지파에 비해 별 볼일 없는 지파였습니다. 사실 ‘벤야민’ 지파의 왼손잡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임에 비추어보아, 그 지파에서조차 소외되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별 볼일 없고, 외적으로도 흠이 있는 에훗을 하느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는 자리에 ‘은밀히 드릴 말씀’(판관 3,19)이 있다며 마치 더 많은 뇌물을 따로 줄 것처럼 에글론의 탐욕을 부추기고는,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판관 3,20)이라며 미리 준비해 둔 칼로 그의 배를 찢어 죽입니다.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훗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굳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판관 3,22)

탐욕은 결국 탐욕을 더 부리려다가 탐욕 때문에 죽습니다. 탐욕의 상징이던 그의 배에서 굳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은유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을 이기는 것은 ‘연대’입니다. 개인들은 더 가지고 싶어서, 더 탐욕을 부리고 싶어서, 탐욕스런 지도자를 세우지만, 이것은 결국 민족들의 불행을 가져다줍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연대하면 탐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중심주의, 자본중심주의의 사회가 강해질수록, 종교가 이를 바로 잡아주고, 이에 대한 피폐함에 대해서 경고해주시는커녕, 반대로 인간 개인의 탐욕과 영합하여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올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더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 무속신앙이나 점집, 도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계속 경계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탐욕을 좇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탐욕 때문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김성일 에라스토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교수)

“Remember Red,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레드 기억해! 희망은 좋은 것이며,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 1994)의 명대사이다. 주인공 앤디(팀 로빈스 역)는 잘 나가는 엘리트로서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으나, 그의 아내와 그 불륜 상대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대사는 앤디의 교도소 친구인 레드(모건 프리먼 역)에게 희망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강력범이 수감된 교도소 환경에서 짐승처럼 취급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지난해 9월~11월간 교도소를 찾아가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형 시설을 방문하여 재소자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교정시설은 안양, 서울 남부, 의정부, 여주, 화성 직업훈련 등 5개의 교도소를 순회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남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여성 재소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업은 기업가정신이며, 도전정신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격리된 재소자도 그 기회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소 후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은 물론 사회, 가족과 단절되어 삶이 정체된 이들에게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이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개개인의 여러 사유로 죄를 지어 옥살이하는 재소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트렌드, 창업 아이템, 상권입지,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에 도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과 경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창업기획자)로써 재소자가 출소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송정섭 신부님께

먼저 갑작스러운 제 편지에 놀라진 않으셨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신부님께 저를 알리고 기억해 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끈기와 인내심도 배웠고 늘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 악물고 이곳 구울을 지키며 저 나름대로 정해진 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또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저에게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7살 난 딸이 있기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저만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며 버텨낸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늘 멈춰진 시간 속에서 살던 저에게도 기적 같은 가석방이 확정되고 사회로 복귀할 생각에 나름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현실의 높은 벽이 또다시 저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긴 수용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저는 결국 출소하고도 제 전공을 이어나갈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딸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어리석고 못한 엄마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쉽게 시작하기가 무서운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제 딸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주임님(교도관)께 제 속마음과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출소 후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할 생각입니다. 간간이 제 소식을 전해드리며, 앞으로의 삶을 더 탄탄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후에는 제가 가진 재능이나 자격증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부디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 용기 내어 편지해 드립니다.

출소 후 반복되는, 잘못된 길을 걸지 않도록 용기 내어 신부님께 내민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늘 이곳에 있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2022. 12. 20. 임OO 올림

2023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천연 인슐린인 이눌린 성분 다량 함유. 당뇨,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건강에 도움.

• 히카마 수제조청 (소화불량, 저혈당, 식도염, 장건강에 도움/식후 떠서 드시거나, 잼, 설탕, 물엿 대용)

- 600g 1병 20,000원

• 히카마 환 (당조절, 혈액순환, 변비에 아주 좋음/히카마, 여주, 함초 배합)

- 150g 1통(15일치) 30,000원

• 히카마 소금 (저나트륨 소금, 히카마 함초 추출물 함유)

- 250g 1병 6,000원 / 400g 1통 10,000원

※ 택배비 별도 (4,000원 / 5만원 이상 무료) • 주문전화: 010-9057-1268

• 계좌: 351-1240-5877-53 / 농협 / 황금정(엠마오농장)



● 행사 알림

- 2월 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30
- 2월 10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7차 이사회 / 교정사목센터 / 17:00
- 2월 11일(토)~12일(일)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제기동성당
- 2월 16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2월 18일(토)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 교정사목센터
- 2월 20일(월)~21일(화)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워크숍 / 성앵베르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2/12/15~23/01/13)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는 김원실 레지나, 김춘숙 카타리나, 서정희 카타리나, 홍기문 베드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구인영 안젤라, 권인영, 정은희 글라라님께서도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